



서정인, 「강」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사실적
- 배경 : 시간-1960년대, 겨울 / 공간-군하리 주변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세 사람의 동행
- 주제 :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갖는 허무와 비애
- 인물 :
 - 김 씨: 늙은 대학생. 한때 촉망받기도 했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감에 따라 피해 의식과 열등감을 지니게 됨.
 - 소년: 시골 출신으로 공부를 잘해서 이모부 댁에 와서 일을 도와주며 공부함. 김 씨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
 - 이 씨: 세무서 직원. 속물성 근성을 지님. 표면적으로 유쾌한 삶을 사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인물임.
 - 박 씨: 김 씨와 이 씨가 머무는 하숙집 주인이자 전직 국민학교 교사.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인물임.
 - 술집 여자: 군하리 술집 '서울집'에서 일함. 신부(新婦)가 되는 꿈을 갖고 있음. 김 씨에게 호의를 가짐.
- 제목 '강'의 상징성 :
 - '강'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모습 암시.
 -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삶이 제각기 애환을 지닌 채 강의 흐름처럼 덧없이 흘러감.

#EBS

해제

이 작품은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을 중심인물로 하여 줄거리 자체보다는 주제 의식에 비중을 두고 내용을 전개한 전지적 시점의 소설이다. 뚜렷한 사건이 제시되지 않지만, 현실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담담한 묘사를 통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인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강'이지만 소설 속에 실제로 강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제목에서의 '강'은 강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갖는 허무와 비애

전체 줄거리

김 씨와 이 씨는 박 씨네 하숙생들이다. 셋은 버스를 타고 군하리의 혼인집으로 가고 있다. 박 씨는 군대 기피자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한 처지이다. 그의 곁에는 살찐 젊은 여자가 앉아 있다. 그녀는 술집 작부이다. 이들 셋과 여자는 같은 곳에서 하차한다. 밤늦게 혼인집을 다녀온 세 사람은 거나하게 취해 버린다. 박 씨와 이 씨는 낮에 만났던 여인의 술집으로 가고, 김 씨는 혼자 여인숙에 눕는다. 침구를 가지고 방에 들어온 여인숙 아이를 보며 김 씨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다 잠이 든다. 술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진다. 술집 여자는 김 씨가 늙은 대학생이라는 말에 놀라고, 방을 나와 김 씨를 찾아 나선다. 밖에는 소리 없이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다. 그것을 본 여자는 신부가 된 자신을 상상으로 그려 본다. 그녀는 김 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누나처럼 김 씨를 편히 누인 뒤 잠자는 김 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서정인, '강'

“웬 사람들이슈?” / “돈 주께 술 파시오.”

“하하, 여기선 술을 안 파는데요. 이다음 집에 가 보슈.” / “여기선 뭘 파우?”

“여긴 여인숙이오.” / “정말 그렇군. 간판이 없는데, 낮에 본 간판 말야.”

“여인숙 간판은 있을 거 아냐?” / “아, 간판 없이 손님을 받죠.” ↳ 낮에 만났던 여인의 술집 간판(‘서울집’이라고 적힌)을 말함.

“그럼 때문이라도 따 뵈야지.” / “아홉 시 막버스가 지나가면 손님이 없습쇼.” -막차를 놓친 시간임을 알 수 있음.

“우린 손님 아니우?” / “우린 이 집 손님이 아니지. 이다음 집 손님 아냐?”

↳ 여인숙

↳ 술집

“난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김 씨는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 인물을 익명적으로 제시함.

“학생. 하, 학생?” - ‘김씨’를 부르는 말로 ‘씨는’ 늙은 대학생’임.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마당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저편에 시커먼 마루가 있고 불

↳ 여인숙에 목기를 결심함.

빛이 비친 방문이 있다. 그 방문이 열리고 남폿불이 쭉 나온다. 그는 그리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마루에 걸터앉는다. 소년이 남포를 기둥에 걸고 방을 치운다. / “들어가두 괜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

↳ 많이 취해서.

↳ 김 씨가 일행과 떨어짐.

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 소년의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됨.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 계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 과거 회상의 매개체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하는구나.” / “예. 접때두 일등 했어요.” - 자부심이 담긴 대답.

아, 이건 뽀뽀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 “여기가 너희 집이냐?”

↳ 김 씨의 냉소적 태도가 담긴 내적 독백. 맥락을 고려하면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한 자신에 대한 냉소라 할 수 있음.

“아네요. 여긴 이모부 맥이예요. 저의 집은요, 월출리에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 벽촌 출신으로 가난하여 친척 집에서 일을 도우며 어렵게 공부함.

『가난한 대학생. 덜컹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선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

↳ 김 씨의 처지

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를 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돌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 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광광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

↳ 남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소리내지 못함 → 당당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드러냄.

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 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 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 식모가 주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하 나오는 소리

↳ 조심하는 발소리에 식모임을 알고 안심. → 가난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처지임.

『: 소년과의 대화 사이에 가난한 대학생과 관련된 과거 회상을 삽입함. →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

“학콘 여기서 다니냐?”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폿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톨 안 들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 김 씨의 혼잣말(독백). → 대화의 단절 →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



서정인, 「강」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 김 씨가 혼잣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

↳ 김 씨가 살아온 삶의 과정

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 소년. 실제로는 김 씨 자신.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

『: 천재가 열등생이 되는 과정으로 소년의 현재와 미래이자 김 씨가 경험한 과거.

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땀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과거 선택을 후회함.

↳ 우물 안 개구리(속담)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

‘템스강에 불을 지르다(set the Thames on fire):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대단한 일을 하다.’라는 관용구 활용하여

아무나 삶에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드러냄.

열개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

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

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

『: 학창 시절을 가난으로 힘들게 보냄.

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

↳ 현재의 자신에 대한 김 씨의 인식.

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

↳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

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

↳ 실제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

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

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어린 시절 품었던 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현재에 대한 탄식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남. ↳

*호야: 남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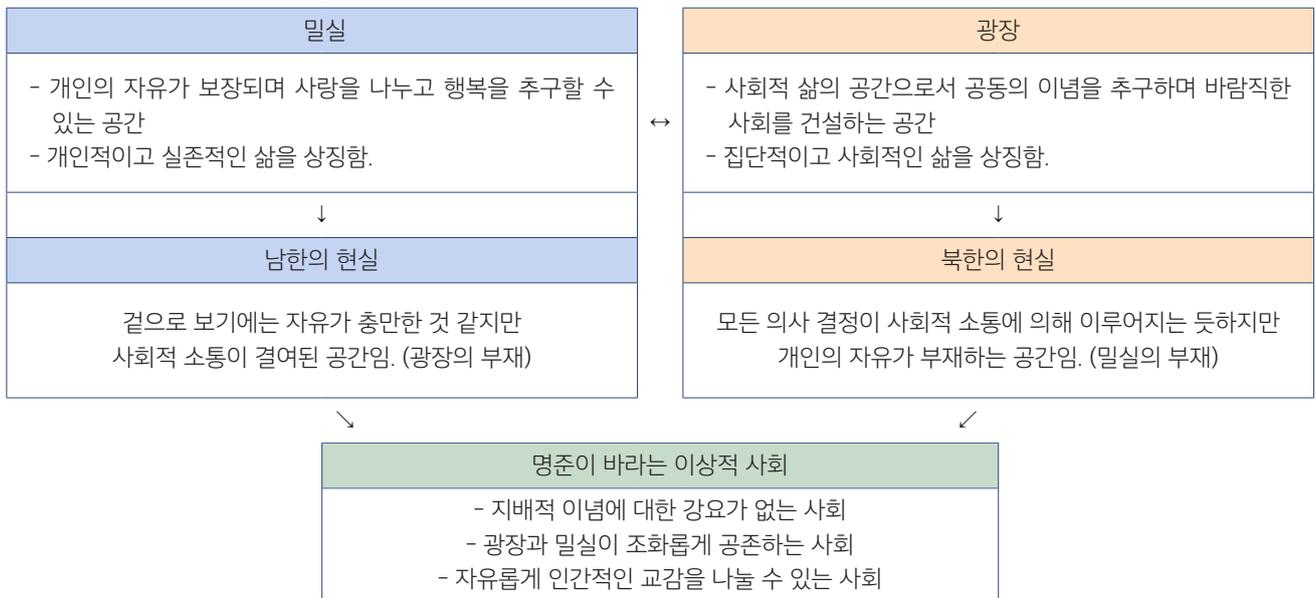
#작품의 특징

- 대화 사이에 한 인물의 회상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흐름을 늦추고 있음.
- 대화 상대 없이 한 인물이 혼잣말을 길게 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서사 흐름의 속도감을 늦춤.
- 작중 상황에는 제목과 관련된 ‘강’은 나오지 않지만 한 인물의 삶의 과정을 비유하고 있음.
-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지만 되도록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사적 상황을 제시함.
- 이야기 밖 3인칭 서술자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 형성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유기성 없이 나열함.
- 극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실존과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함.
- 인물을 익명으로 제시하여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회 구성원들임을 보임.
-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서술됨.
- 간결한 문체를 통해 작중 상황을 서술함.



최인훈, 「광장」

- 갈래 : 장편 소설, 분단 소설, 관념 소설
- 성격 : 관념적, 독백적, 회고적
- 배경 : 시간-해방 직후부터 6·25전쟁까지, 공간-남한, 북한, 타고로 호 안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이데올로기 갈등
- 주제 :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 인물 :
 - 명준: 철학을 전공한 대학생. 남북을 오가다가 이념적 대립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광장을 찾아 중립국으로 가던 중 배에서 자살을 택함.
- '중립국'의 의미 :
 - 진정한 자유를 고민하던 이가 선택한 기대하는 공간
 - 조국 재건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낯선 공간
 - 제국주의와 같은 이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
 - 실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광장다운 광장이 건설되어 있는 공간
 - 동일한 공간에 살면서 문동이 대립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공간
- '광장'과 '밀실'의 의미 :



#EBS

해제

이 작품은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 낸 장편 소설이다. 체제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주인공 명준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삼국(중립국)행을 선택한다. 남한과 북한의 부조리한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목격하고,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닫게 된 명준은 중립국으로 향하던 배에서 끝내 자살을 하고 만다. 이 작품은 명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 상황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대학생 명준은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끝내 월북을 감행한다. 하지만 명준은 이념의 왜곡으로 인해 온갖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북한 사회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된다.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한 명준은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정전 협정에 따라 전쟁 포로들에게 체제 선택의 기회가 생기자 명준은 관련 인물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삼국을 선택하여 타고로호를 타고 인도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중립국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을 갈등하던 명준은 처음엔 감시자로 여기며 충으로 씩 버리려고 했던 갑판 위 두 갈매기의 모습에서 은혜와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결국 바다로 뛰어든다.



최인훈, 「광장」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 대목

↳ 중립국을 선택한 전쟁 포로들

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낮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수난자 같은 모습을

↳ 중립국

↳ 석방자들에 대한 선장과 뱃사람들의 인식

저희들대로 그려 낸 탓인 모양이다.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몹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 선장과 뱃사람들

듯한 부끄러움을 맞는다.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싶게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에 섬뜩한 무엇

↳ 낮선 땅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뱃사람들의 시선에 부끄러움을 느낌을 알 수 있음.

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 선장의 질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말하며 대답을 피함.

명준은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흑 뿔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 이념 갈등으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준과는 대비되는 선장의 여유로운 태도

“허긴,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 살겠다는 그 일이 말이지. 부모나 가

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소?” ↳ 명준이 처한 현재 상황이 나타남.

“있어요.” / “누구? 어머니?”

“아니.” / “아버지?”

명준은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애인은?”

명준은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해쓱해진다. - 명준에게 애인과 관련된 아픔이 있음을 드러냄.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 ↳ 명준에게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있음을 암시함.

를 비는 그런 품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 펍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

서 안됐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와서, 바늘로 꽃아 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한다. 갈매기들은 바

↳ 선장과 명준이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 감을 알 수 있게 함.

항해 동안 명준을 따라오는 두 마리 갈매기는 죽은 은혜와 그의 아이를 상징. ↳

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맞모금을 굵고 배꼬리 쪽으로 휩 사라지곤 한다.

↳ 대각선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

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애인은?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 선장과 대화로 명준이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됨을 알 수 있음.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 두루뭉술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명준

명준은 미안했던 것을 매우기나 하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건너다본다.

선장은 잠깐 실눈이 되었다가, 문득, 잘라 말한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 만지작거린다. 저쪽은 다짐하듯,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 “글쎄요.”

아까와는 단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품이 곧아서 좋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 명준이 소중한 것을 남긴 채 중립국으로 떠나고 있음을 암시함.

(중략)·‘중략’이후 장면: 과거 회상

“중립국.”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교각살우(矯角殺牛)』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

↳ 지식인은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 조국(남한)

↳ 현실 속의 문제

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

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 남한 측의 설득 논리 - 지식인으로서의 사명, 책무

↳ 남한 측의 설득 논리 - 감정영의 호소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낮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 남한 측의 설득 논리 - 지식인으로서의 사명, 책무



최인훈, 「광장」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남한 측의 설득 논리 - 감정에의 호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남한 측과 명준의 대화는 상상임을 알 수 있음. ↙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명준을 설득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설득자의 행동을 상상함.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

↳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중립국을 선택한 데서 느끼는 후련함과 조국이 아닌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탈감.

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 실제적인 현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 남북 설득자의 허황된 말 상징.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데올로기 ↳ 이상과 현실

↳ 이상과 현실 사이의 놓여 있는 위험 비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그로 인한 고통

↳ 명준을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

노동자의 슬픈 환장.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 객관적 사실 ↳ 허황된 이상 『이념의 허상만 내세운 남한과 북한 권력자들의 말』 ↳ 솔깃한 말로 명준을 ↳ 피려는 설득자 비유.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낚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 ↳ 감언이설(甘言利說)

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 난파자들이 알게 된 진실. 참알 알고 돌아온 명준을 회유하려는 설득자의 속셈 상징.

#작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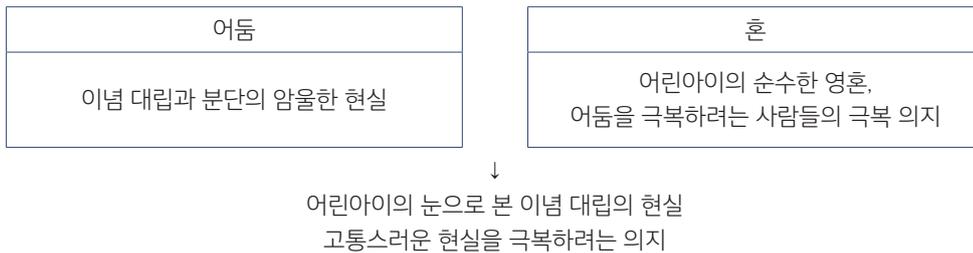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회상 형식을 취함.
- 남북 분단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
- 남한과 북한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제기함.
- 실제 일어난 일과 인물이 상상한 일을 병치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냄.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 인물의 관념적 인식을 드러냄.
-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
-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함.
-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됨.



김원일, 「어둠의 혼」

- 갈래 : 단편 소설, 분단 소설, 성장 소설
- 성격 : 비극적, 사실적, 회상적
- 배경 : 시간-광복 직후, 공간-낙동강 근처의 장터 마을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제재 : 아버지의 죽음
- 주제 :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불행과 비참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
- 인물 :
 - 나: 조갑해. 초등학생. 사회주의(좌익) 활동을 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함.
 - 아버지: 조민세.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 해방 이후 가족의 생계도 등한시 한 채 사회주의(좌익) 활동을 하다 체포당한 뒤 죽음.
 -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지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음.

• 제목의 의미 :



#EBS

해제

이 작품은 해방 후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보여 주고 있는 소설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가족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인데, 이는 어린이의 시선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어둠’의 이미지는 현실의 암울함과 인물들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주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불행과 비참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

전체 줄거리

해방 후 좌익 활동을 하며 숨어 도망 다니던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식과 아버지가 총살될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다. 어린 나이인 ‘나’(갑해)는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보다 굶주림의 고통이 더 크다. 그래서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건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모 집에서 어머니를 만난 ‘나’는 지서에 붙잡혀 있는 아버지를 만나 보라는 얘기에 지서로 간다. 지서를 나오던 이모부가 ‘나’를 뒤뜰로 데려가 아버지의 시체를 보여 준다. 비로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실감한 ‘나’는 울면서 강변으로 뛰어가서, 강물처럼 쉬지 않고 자라야 한 다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집안의 기둥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모부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시체를 보게 한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6·25 전쟁이 터진 후 이모부도 돌아가셔서 여쭈어볼 수 없게 되었다.



김원일, 「어둠의 혼」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 마당에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 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다. 사람을 피

↳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 보안법'

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았다간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다.』

『: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서술자인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서술함.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며 썩군거렸

↳ 공산주의 활동

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랑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

↳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님.

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귀엣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꾼 이모부님조차 알면서 모른 체하는 지 입을 봉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

↳ 아버지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임을 짐작하게 함.

이 너무 많았다. - 서술자가 어린 아이임을 드러냄. → 이데올로기 대립이 낳은 비극을 강화하는 효과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

↳ 아버지가 숨어다니기 전의 추억 회상

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빛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뱃가죽이 팻닥거렸다.

↳ 해방 정국의 상황을 설명해 줄 우회적 도구.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소재. 아버지처럼 사회적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해방 정국의 지식인.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 뽕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쪼금 더 높이 뛰거든.

↳ 사회적 진보를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

한 달쯤 뛰면 한 뽕쯤 뛰고, 두 달쯤 뛰면 두 뽕을 뛰고, 그 다음다음 달은…….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

↳ 지식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상

아 보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깐.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

↳ 청개구리(아버지와 같은 지식인들)의 한계 → 아버지의 비극적 운명 암시

까지 날마다 높이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잎에 다시 놓아주었다.

↳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

↳ 실패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심리를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의미.

(중략)

……아흔아홉, 백. 나는 벌써 백까지 세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장터 마당으로 가는 다리쪽에 눈을 준다. 나무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사람이 지나갈 땐 뼈거덕 소리를 낸다. 다리 건너에서 만수 동생이 볼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기를

↳ 달구지가 지나갈 땐 찌거덕거린다. '나'의 불안정한 상황과 심리를 암시함.

↳ '나'의 가난한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

한다. 녀석 집도 우리집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먹은 모양이다. 볼록한 배가 출랑거린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 '나'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음.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 ↳ 분임이. 몸이 불편하고 머리속함.

가 운다. 누나와 분선이가 쪽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누나는 집이 떠나가란 듯 큰 소리로 운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선다. 허리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다리가 떨린다. 장독대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뒤쪽 대추나무는 귀신 꼴이다.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 흘뜨

공포감 환기. '나'가 열흘쯤 전날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

'나'가 대추나무를 무서워하는 이유 ↳

린 게 무섬기를 들게 한다.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 넘

엄마가 한밤중에 잡혀간 날을 회상 ↳

고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난 어머니 가슴팍에 장총 부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조민제 어디로 갔어?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금세 어디 갔냐 말이다. 이년아, 네 서방 어디 숨겼어? 순경

↳ 아버지 이름

은 어머니 먹살을 틀어쥐며 소리쳤다. 다른 순경이 어머니 허리를 걸어쳤다. 호각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여러 순경이 집 안을 살살이 뒤졌으나,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다. 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다. 그날 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섬기를 덜어 주었다.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분선이와 나는 서로

↳ '나'의 무섬기를 완화시키는 소재



김원일, 「어둠의 혼」

꺼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울기조차 못했다면 분선이와 나는 기절했을 거였다. 봉창이 환해질 때까지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새운 그 밤의 두려움은 지독했다. 죽어 뿌리라, 어데서든 콧 죽고 말아 뿌리라.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되씹

↳ 아버지에 대한 '나'의 원망이 큼.

었다.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닥쳐 집 안을 뒤졌다.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밟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이튿날, 학

↳ 순경들의 수색이 빈번했음.

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꺼져 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 어머니가 아버자로 인해 지서에서 순경들에게 고초를 겪었음.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 다니던 아버지가 수산리 장터에서 순경에게 잡혔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당할 거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까지 겪었던 고초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함.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 꽃물도, 닭뿔 같은 맨드라미도, 코스모

↳ '나'에게 불길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해 주는 색

스의 보라색 꽃도 싫다. 어머니 짓꼭지 색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 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 든 모습을 떠올려 준다. 말라붙은 피와 까맣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 보라색을 싫어하는 이유

↳ '나'에게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렵다. 이 세상에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 땅에서 살고 싶다.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 그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작년에 지서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당했다.

#작품의 특징

-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 차원보다는 생활의 차원에서 바라봄.
- 작품 전체로 보면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의식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보여줌.
- 상징적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통해 우의적으로 주제를 암시함.
- 특정 일화를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
-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전달함.
- 색채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함.
- 특정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암울함과 인물들의 부정적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장을 구사하며, 독백조의 문체를 사용함.
- 이념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가치 판단을 유보함.



홍성원, 「무사와 악사」

- 갈래 : 현대 소설
- 성격 : 우의적, 비판적, 풍자적
- 배경 : 시간-1970년대, 공간-서울, 전라도의 어느 시골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 인물 :

나(정동근): 서술자. 김기범의 동창. 현재 노년의 미대 교수.

김기범: 주인공. 영민한 두뇌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기회주의자. 오일규에게 기생하며 살다가 오일규가 사망한 후 시골에서 도인처럼 삶.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오일규: '나'와 김기범의 동창. 장관의 지위까지 오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음. '나'와 김기범으로부터 상이한 평가를 받는 인물.

- 갈등 :

인물에 대한 '나'와 김기범의 판단

'나'의 판단	↔	김기범의 판단
김기범 = 파렴치범 오일규 =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		기범 자신 = 무사를 칭송하며 사는 악사 오일규 = 운 좋은 삼류 무사

- 상징 :

'나'의 판단	악사
뽑아 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하는 존재 ↓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	광대 같은 주인을 위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존재 ↓ 무사의 옆에 기생하며 그의 행위들을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
↓↓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지식인의 모습	

#EBS

해제

이 작품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보인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지식인의 부정적인 모습은 작중 김기범의 말에 언급된 '무사와 악사'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 되는데, 여기서 '무사'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을 나타내고, 그러한 무사의 옆에 기생하며, 다만 그의 행위들을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을 '악사'로 지칭하고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작중 인물인 오일규와 김기범을 통해 그려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나'는 소학교 때부터 친구인 김기범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김기범은 타고난 재능과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로 일본에서 법대를 나온 유학생 출신이다. 그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현실주의자로, 그 때문에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제 말 조선 학생 출정식에서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기로 모의하고는 기상천외한 만세를 불러 위기를 벗어난 일이나 친일파에 대한 변호, 친구 오일규에 대한 배신 등은 그의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일화이다. 오일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무사가 없는 세상에 악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자취를 감춘 그는 시골에 들어가 도인(道人)의 삶을 살다가 10년 만에 '나'를 찾아오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홍성원, 「무사와 악사」

숨 막히는 초조와 불안 속에 이윽고 도지사가 축사를 끝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긴장으로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 거사를 거행하기 전의 긴장감

↳ 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도지사가 방금 축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동지들의 입에서 잔기침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다. 불안과 초조 속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거사가 이제야 우렁차게 식장을 진동시킬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아무리 초조하게 기침 소리를 기다려도

↳ 조선 학생 출정식에서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기로 계획함.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할 뿐이었다. 의아하고 불안한 나머지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주위의 동지들을 훑어보았다.

↳ 두려움에 거사 실행을 주저하고 있음.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동지들은 지금쯤 사방에서 기침들을 토해 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팔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 가

↳ 거사의 실패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

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

↳ 안도와 기쁨의 이유

안과 공포에 떠는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 거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공포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리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선 반자이(조선 만세)!” / 기범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 좌석에 홀로 대독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고

↳ 기범의 첫 번째 만세 → 사람들을 긴장과 공포로 몰아넣음 →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줌.

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고관들도 헌병들조차도 낮 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 기범의 행위에 대한 동지들의 낭패감 → 원망의 감정이 담겨 있음.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

↳ 기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동

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렸다. / “닛본 반자이(일본 만세)!”

기범의 두 번째 만세 → 첫 번째 만세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줌. →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함. ↳

침묵은 계속되었다.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에 여전히 앞 좌석

↳ 기범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행동.

에 깨끗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

↳ 반일↔친일

는 왜 조선 만세를 부른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다.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 “다이토아 반자이(대동아 만세)!” - 기범의 세 번째 만세 → 긴장감 해소 →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함.

식장을 지배해 온 숨 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주었고,

↳ 거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줌. ↳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 준 것이다.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 첫 번째 만세를 저항의 의미가 아닌 일제에 찬동하는 의미로 만들어 주었으므로.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가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

↳ 위험한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으로 중임을 맡음 → 기범의 기회주의적 태도

킬 목적이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범은 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침 소리가 들리더군. 그래서 난 계획대로 만세를 불렀지. 첫 번째 만세는 잘된 것 같은데 그 뒤의 만세들은 나두 모르게 튀어 나온 것이었어.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네. 나를 모두들 원망하구 있겠지?”

↳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한 변명 ↳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위선적인 모습

(중략)



홍성원, 「무사와 악사」

『일규는 기범과 부닥치자 가장 불길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 '나'와 기범의 친구. 혼란한 시국에 사회적 명성을 얻고 민의원 선거에까지 도전하지만 기범의 배신으로 선거에 떨어지고 후에 교통사고로 죽음. ↳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일규를 폄하하므로 『』: 기범이 죽은 일규의 삶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음.

기범이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라는 '나'의 인식.

↳ 기범이 일규의 선거 운동을 돕다가 경쟁 후보의 돈을 받고 일규를 배신한 적이 있음.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 기범과 일규에 대한 '나'의 인식. ↳ 일규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조리한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던져 투쟁하는 지식인이라는 '나'의 인식.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武士)에 불과했다. 뽑아 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 온 일규가 세상이 혼탁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세상이 더없이 ↳ 사회 정의를 위해 정작 한 일은 없음. 편안해진 후에 나타나는 허풍스런 모습이라는 '기범'의 인식이 드러남.

놈이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 ↳ 걸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모습 ↳ 어떤 까닭에서 빚어진 일이 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런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 세상이 혼탁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에 나타나는 지식인의 위선적인 모습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라는 기범이 말했었음.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 둘 순 없지 않냐? 내가 일 ↳ 위선적인 모습으로 대중적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

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네 쪽은 그렇다 치자. 허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樂士)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 거러서 무사는 자기 입으 ↳ 칭송이 필요하지만 무사 스스로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 없을 때

로 자신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

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 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를 탐(연주함). 지식인들의 이기적이면서 위선적인 모습 ↳

#작품의 특징

-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함.
-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지식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함.
- 다른 대상에 빚대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냄.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드러남.
- 특정 인물에 대한 인물 간의 상반된 평가가 드러남.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강조함.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갈래 : 연작 소설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 배경 : 시간-1980년 여름, 공간-부천시 원미동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 인물 :
 - '그': 임 씨에게 집 수리를 부탁한 집주인. 서울에 직장을 둔 회사원. 임 씨에게 이질감을 느끼다가 점차 임 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 인물
 - 아내: '그'의 아내.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 금전적인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인물.
 - 임 씨: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겨울에는 연탄장수로 일하고 여름에는 집을 수리하러 다님.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인물.
- 상징적 소재 :

가난한 삶 (임 씨)	↔	부유한 삶 (스웨터 공장주)
지하실 방, 라면		맨션아파트, 달걀후라이, 곰국, 양주

#EBS

해제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일용직 노동자인 임 씨의 외모와 직업만 보고 임 씨를 평가하고 의심했다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소시민이다. 임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비 오는 날이면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는 도시 빈민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진 '그'는 임 씨의 정직한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공존과 공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해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제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전체 줄거리

'그'는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하지만 집의 잦은 하자로 인해 집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어느 날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에게 소개받은 임 씨에게 일을 맡긴다. 임 씨가 원래 연탄장수이지만 집수리를 부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와 아내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임 씨는 깔끔하게 공사를 마친다. 임 씨는 서비스로 옥상까지 고쳐 주고, 공사비가 적게 들었다며 처음의 견적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 '그'는 임 씨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함께 술을 마신다. 임 씨와 한잔 더 하게 된 '그'는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 빈민인 임 씨의 처지에 공감하게 된다.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쥬 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 임 씨가 수리 비용을 더 비싸게 청구할까봐 ‘그’와 ‘그’의 아내가 긴장하게 되는 이유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 임 씨가 공사 비용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긴장함→소시민적 모습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엮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며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 ‘그’가 임 씨에 대해 불신을 느끼고 있었음.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맞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 공사 비용이 처음의 견적보다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임 씨의 정직함.

임 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찌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 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빠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 임 씨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가 예상했던 상황과 달리 임 씨가 수리 비용을 낮추자 당혹감을 느낌.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 아내 역시 임 씨가 내놓은 견적 비용이 너무 적은 것에 놀라워함.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 인물에 대한 오해 해소에 기여하는 소재. ‘그’와 임 씨 간의 연대를 매개하는 소재.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 ‘그’의 아내가 임 씨를 정직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암시함.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 임 씨가 한 일에 비해 칠만 원이라는 대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함.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자가 서비스로다가…….”』

↳ 임 씨의 꼼꼼함.

↳ 임 씨의 인정 상징. 『;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정을 베푸는 모습에서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 씨의 인물됨이 드러남.

“서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의심을 받던 임 씨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손해를 보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함.→‘그’를 배려하는 임 씨의 순박함.

『; 임 씨의 정직함이 부각됨. 임 씨에 대한 부부의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됨.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 임 씨의 진실한 태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

[중략 부분의 줄거리]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마친 임 씨와 함께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임 씨가 스웨터 공장주에게 연탄값 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정과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에 큰 공장을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임 씨는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 원을 받으려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 ‘그’에 대한 호칭 변화: 사장님→형씨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저런 것도 집 속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 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가리봉동 그 임 씨가 처해 있는 궁핍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냄. 임 씨의 순박함과 정직함을 부각하는 공간.”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맨션아파트!”

↳ 임 씨가 살고 있는 '지하실 방'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부유한 삶을 상징. 현실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드러냄.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션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구.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짚는 공장에 나뎡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늘 궁핍한 현실에 대한 임 씨의 분노

임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 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 보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 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똥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뿔굴면서 요란한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 '그'의 위로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임 씨의 절망감과 무력감 부각.

임 씨의 기세에 놀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아파트에 살게되고 달걀 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짙꺼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 번 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

↳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서 수 없는 모순된 현실.

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 '그'가 임 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식함.→'그'에게 임 씨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있음.

그는 임 씨의 뒷발 선 눈을 마주 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 임 씨를 의심하며 손해를 볼까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공리를 거둬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였다. 제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

↳ 임 씨를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것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 자각함.

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 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뽕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 뽕이 월 만큼 들이는 힘이나 수고로움

꺼덕거리는 놈, 룸싸롱에서 몇십만 원씩 팁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 사투리 사용→현장감을 드러냄.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 를 되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 '그'가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드러냄.

→ 임 씨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함.

#작품의 특징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사건의 정황과 그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함께 보여 주고 있음.
- '그'라는 특정 인물에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로서 '그'의 시각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보다 '그'의 내면 심리와 변화에 주목하도록 함.
- '그'의 심리를 통해 소시민적 속물근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 등장인물인 '그'에 관한 서술이 주관적인 성격을 띠.
-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음.
- 인물의 상황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부각함.
- 상징적 소재로 인물들의 처지를 드러냄.
- 대조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성석제, 「투명 인간」

- 갈래 : 장편 소설
- 성격 : 비판적
- 시점 : 1인칭 시점(서술자 '나'가 장면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됨)
- 주제 :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
- 인물 :
 - 할아버지: 김용식. 부잣집 삼대독자로 태어나 자랐으나 독립운동단체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함. 이때 야반도주하여 개운리에 정착하게 됨.
 - 아버지: 김충현.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자 농사일에 전념하면 살아감. 육 남매를 낳음.
 - 백수: 첫째 아들. 온 가족의 기대와 받는 가족의 기동 같은 존재.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병사함.
 - 금희: 큰딸. 장남의 죽음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장에 취직함.
 - 명희: 둘째 딸. 장남의 죽음 후 학업과 공장 일을 병행하다 사고로 바보가 됨.
 - 만수: 둘째 아들. 장남의 죽음 후 갑작스럽게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 끝까지 책임을 버리지 않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나 보상받지 못하고 결국 '투명 인간'이 됨.
 - 석수: 셋째 아들. 욕심 많고 악착같은 성격. 대학에서 공황 운동에 참여죄로 고문 받다 수사 기관의 앞잡이가 됨.
 - 옥희: 막내 딸. 만수의 도움으로 식당을 차림.
- 제목 '투명 인간'의 의미 :
 - 보이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강요받고 고생스럽게 살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
 - 내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 사적인 안위나 이익을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드러내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우직한 사람.

#EBS

해제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진 여정을 살아가는 삼대의 이야기를 김만수의 삶을 중심으로 다룬 소설이다. 여러 인물이 1인칭 서술자로 번갈아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삽화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전개 방식을 통해 특정한 사건에 무게를 두지 않고 총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사건이 전개된다. 김만수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거쳐 온 분단 이후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그려진다.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결국 뚜렷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투명 인간'이 되고 마는 김만수의 비극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

전체 줄거리

김만수의 조부는 일제의 억압을 피해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살고, 김만수의 부친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공부 대신 농사일에 전념하며 6남매를 낳고 살아간다. 첫째 아들인 백수는 똑똑하여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병사한다. 백수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둘째 아들인 만수는 공업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큰딸인 금희는 구로 공단에 취직하기 위해 가출한다. 대학생이 된 셋째 아들 석수는 공황에 참여했다가 수사 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들의 수하가 된다. 서울 생활 도중 연탄가스 사고로 인해 똑똑하던 둘째 딸은 바보가 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한 만수는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돌보며 살아간다. 또한 만수는 종적을 감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막내 여동생의 결혼 자금과 살림집을 마련해 주고 식당을 차릴수 있게 도와준다. 만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게 되고, 결국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해 큰 빚을 지게 된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빚을 갚다가 '투명 인간'이 된다.



성석제, 「투명 인간」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 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집구석에 새 기둥이 무슨 소용이며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뭐가. 남자들은 이해하
 ↳ 백수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감 상징. 『: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과 이로 인한 절망감을 비유.

기 힘든 족속들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다.

↳ 백수의 죽음 이후 고통을 짊어지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대학에 다니던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재가 되어 돌아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다. 형에 관한 모든 이야

↳ 1인칭 서술자 '나'가 백수의 남동생으로 바뀌었음.

기는 금기시되었다. 월남이나 군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은 우리 육 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었고 남아 있는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음.

할아버지는 병환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뿐
 이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자나 깨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달랐다.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다. 석유를 사 오곤 하던 형이 생각이 나서인지 아버지가 불을 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저녁을 먹은 우리는 숙제도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상처를 앓는 짐승처럼 각자
 웅크리고 바람 소리 같은 한숨과 신음을 내뿜었다.

↳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음. 형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묘사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될 하나.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다. 효도를 하면 될 하나. 형은
 어떤 집에서도 부러워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이고 모범적인 손자였다. 글을 잘 쓰면 될 하나.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백일장
 에 나가서 빠짐없이 상을 타 왔다. 어디에 가든 일기를 썼고 편지도 잘 썼다. 실험도 잘했고 호기심도 많았다. 동생들한테 잘해 주

↳ 형의 우월한 면모

면 될 하나. 형은 누나들이나 만수, 옥희한테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다. 글이며 노래, 바둑,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하모니카를 사 주고 책을 읽게 했다. 나무 이름, 풀이름,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어릴 적부터 식구들을 대포
 해 아버지한테도 할 말을 했다.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 마침내 밤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별이 되어 버렸다.』

『: 형이 실제로 보여 주었던 행동 중심으로 서술. '될 하나'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무엇이든지 잘했던 형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함. 대상의 특정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열함.

『형은 특하면 꿈에 나타났다. 형은 군복을 입고 혼자 베트콩 일개 연대를 무찌르고 무공 훈장을 탔다. 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되
 었고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판결했다.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면서 그 기대를 배신하면 감옥에 처넣고 굶겨 죽일 것
 이라고 했다. 형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뼈라를 뿌렸다. 금빛 뼈라가 공중에서 날아 내리는 것을 보고 수천 명

↳ 형의 말을 인용. 형의 말로 인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음.

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뛰어갔다. 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날아갔다. 알약을 보여 주면서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
 안 굶어도 된다고 했다. 형을 볼 때마다 약이 올랐다.』 『: 꿈에 나타난 형의 모습 묘사. 실제 형이 보여 주었던 행동이 아님.

점점 집이 싫어졌다.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내가 날이 이속하도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 백수의 죽음 이후 고통을 짊어지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다.

#작품의 특징

- 서술자의 잦은 교체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각 서술자의 입장인 생각을 드러냄.
- 1인칭의 서술자인 '나'가 장면마다 다른 인물로 교체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됨.
- 특정한 사건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전개하기보다는 수많은 삽화와 인물을 엮어서 거대한 풍속화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됨.
- 여러 가지 삽화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구성 방식임.
- 무기력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했던 가혹한 사회의 모습을 드러냄.



현기영, 「순이 삼촌」

- 갈래 : 중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
- 성격 : 사실적, 고발적, 참여적
- 배경 : 시간-1949년 겨울과 30년이 지난 현재 / 공간-제주도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 제주도 4·3 사건의 참상과 후유증에 대한 고발
- 인물 :
 - 나: 제주도 북촌리 태생으로 서울에서 가정을 꾸민 인물. 4·3 사건 당시 7살이었음. 아픈 기억으로 인해 고향을 외면하고 지내다가 순이 삼촌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4·3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역사적 비극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느낌.
 - 순이 삼촌: 4·3 사건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두 아이를 잃음. 그 때의 충격으로 신경 쇠약과 환청에 시달리다 비극적 죽음을 맞음. 다수의 제주도민을 상징하는 인물.
 - 고모부: 4·3 사건 당시 서북 청년단에 소속으로 제주도에 들어옴. 참상이 일어날 때 토벌군으로 작전에 참여한 인물. 당시의 군과 경찰의 처사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옹호하며 덮어두려 함.

#EBS

해제

이 작품은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을 형상화한 소설로,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이 삼촌의 삶을 통해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까지 살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즉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이 죽음보다 못한 삶이었을 뿐이며, 이들이 존재하는 한 그 사건을 망각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는 가장이고 위선일 따름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민중적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역사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작가 정신을 보여 준다.

주제

제주도 4·3 사건의 참상과 후유증에 대한 고발

전체 줄거리

순이 삼촌은 '나'의 서울 집에 와 부엌일을 하다가 두 달 전 고향인 제주로 돌아간 친척 아주머니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8년 만에 제주를 방문하였다가 순이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30여 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 30여 년 전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경 측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벌인 결과로 마을 사람 오륙백 명이 참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순이 삼촌 역시 참살의 현장에 있었으나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남편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순이 삼촌은 경찰에 대한 기피증이 생기고 환청 증세까지 보이게 된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날의 사건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나'는 순이 삼촌이 한 달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기영, 「순이 삼촌」

[앞부분의 줄거리] 음력 선달 열여드레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 고향인 제주에 내려간 ‘나’는 친척인 순이 삼촌*이 얼마전 역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드러냄.↳ 깊은 상실감을 가지 다수의 제주도민을 상징하는 인물.↳

삼촌 자신의 옹팔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계기로 제삿날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순이 삼촌의 죽음과 관련 있는 30여 년 전의 양민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 1948년 제주도에에서 일어난 4.3 사건으로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기분 같아선 은연중에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를 면박 주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았다. 『그래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다.』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를 ‘나’가 못마땅해 함.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고모부님, 고모부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사만 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 부리면 얼마 되여? 무장 공비 한 3백 명쯤 되까?”

↳ 산으로 간 주민들에 대한 고모부의 인식.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다. - ‘나’는 피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모부가 비무장 공비로 부르는 것에 대한 반발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뭐우짜?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이서 마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없어 한라산 밑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이우다.”

↳ 산으로 간 주민들에 대한 ‘나’의 인식.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 줌.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고모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서울 조개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쥬. 목장 지대서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 속을 헤쳐 수색 해 보나 동굴이 나왔는디 그 속에 비무장 공비 스무남은 명이 들어 있지 않아여.”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 마썸.”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부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해점저. 그때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봤이니까. 하이간 굴속에 있는 사람은 영 행색이 말 이 아니라서. 『굶은 피골이 상접헌디다가 한겨울에 젖은 미냉옷 한 벌로 몸을 가리고 떨고 있는데, 동상 걸려 발구락 모지라진 사 람도 더러 있었쥬.』 소위 비무장 공비란 것이 이모양으로 동굴 속에서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냉중엔 상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람도 더러 있었쥬.↳ 고모부는 ‘나’의 반론에 자신의 말을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지칭을 수정하지 않음.

쓰게 되어서. 구호물자를 준비한 갱생원 차려 놓고 선무 공작을 썼쥬. 엘 파이브(L-5) 연락기로 한라산 일대에 전단을 뿌린 투항 ↳ 전사나 사변으로 군대가 출병하여 적국의 영토를 점령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군에 협력하도록 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전.원조 등의 활동.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룸.

을 권고하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떼 지어 귀순자들이 내려와서라.”

“바로 그것입쥬. 선무 공작은 왜 진작에 쓰지 못했느냐는 말이우다. 처음부터 선무 공작을 했으면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 마썸.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했이니…….”

↳ 당시 양민들에 대한 ‘나’의 인식-‘폭도’나 ‘비무장 공비’가 아닌 ‘피난민’일 뿐임.

“겉세 말이여. 대유격전이란 것이 본디 정치 7에 군사 3인데…… 이걸 정치는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 행동만 했이니…… 창설 일 년도 못 된 군대니 오죽할 것고…….”

『아, 때죽음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 ↳ 영탄적 표현-‘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냄.

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복세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 공비 몇백을 빼고 도 3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주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 ↳ 영탄적 표현-‘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냄.

용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그릇 좀 깨진 정도냐.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 가면서 폭동 을 진압해 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인연인가.』 『양민 학살에 대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나’의 판단 과 평가가 내적 독백 제시.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 리라고 섬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불리 들고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제 한번 떼땀이 지낼 뱃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 과거의 억압과 무서운 기억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피해자들의 정체성 확립의 방법. ↳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번 떼땀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 ↳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 고발과 보복으로 되갚으려 하는 것이 아님. ↳ 피해자들의 정체성 확립의 방법



이호철, 「나상」

- 갈래 : 단편 소설, 액자 소설
- 성격 : 성찰적
- 배경 : 내부 이야기의 시간 - 6·25 전쟁 중, / 공간 - 북쪽으로 이송되는 길
- 시점 : 외부 이야기-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이야기-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전쟁 포로가 된 형제
- 주제 :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모색
- 인물 :
 - 형 : 내부 이야기 주인공. 어수룩하지만 솔직한 인물. 동생에 대한 애정을 순수하게 드러냄. 포로로 이송되던 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음.
 - 동생 : 내부 이야기 주인공. 어수룩한 형을 무시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임. 포로로 이송되던 중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찰함.
 - '나' : 외부 이야기 속 서술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인물
- 구성상의 특징 :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어느 여름 저녁에 철은 '나'에게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	→	북한군의 포로로 이송되던 형제가 우연히 만남. 동생을 챙기려는 형의 모습에 동생은 형에게 마음을 열게 되나 이송 중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형은 총살당함.	→	형제의 이야기가 끝나고 철은 '나'에게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다고 말함.

- '밥 한 덩이'의 의미 :
 - 동생의 배고픔을 달래는 소재
 - 동생에 대한 형의 애정
 - 관계를 개선하는 매개체
 -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
 - 위안을 주는 기능
 -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기능
- 제목 '나상'의 의미 :
 - 사전적 의미: 별거벗은 모습
 -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지닌 형을 상징
 -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강조

#EBS

해제

이 작품은 전쟁 중에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만난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드러낸 액자 구조의 소설이다. '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형은 어수룩하지만, 동생을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어수룩한 형을 무시하던 동생은 형을 불편해하지만, 형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며 형에 관한 생각이 이전과 달라진다. 형은 결국 총에 맞아 죽게 되지만, 형의 우직함과 순수함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리함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주제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모색

전체 줄거리

어느 여름 저녁에 철은 '나'에게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형은 좀 모자라고 둔감했는데, 이러한 형의 모습에 아버지는 일찌감치 형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어머니는 그런 형을 안타깝게 여겼다. 영리했던 동생 칠성은 그런 형을 형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전쟁이 나서 형과 동생은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각각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이송되던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동생은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형을 보며 탐탁하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형은 동생을 위해 밥을 얻어 주려고 노력하며, 그런 형의 모습을 본 동생은 이전에 지녔던 형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형을 존중하게 된다. 형이 동생에게 다리가 불편하다는 말을 하자 동생은 눈물을 흘린다. 다리가 점점 불편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형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형으로 여기지 말고 모른 체하라고 당부한다. 동생은 그런 형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결국 형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여기서 형제의 이야기가 끝나고 철은 '나'에게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다고 말한다.



이호철, 「나상」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둔감하고 좀 모자란 형과 그런 형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동생은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던 길에 만나게 된다.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게서 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다.

↳ 형이 경비병에게 맞아 가면서 얻어와 동생의 배고픔을 달래는 소재로 관계 개선 매개의 기능,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 위안을 주는 기능,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함.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디룩디룩한 게 꽤 익살꾸러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한 데가 있었다. 걸핏하면 너 어

↳ 인물의 외양을 묘사

↳ 경비병의 폭력적인 성향

↳ 경비병이 행사한 폭력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울.

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의 집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이 엉엉 울면』

『: 경비병의 성격① 드세고 폭력성이 있음.

너털너털 웃으며 재미있어했다.

이러다가도 저녁이면, / 『“야, 낮에 때린 값이다…… 네 어머니 노릇을 좀 해야겠다.”

꼭 밥 한 덩이를 더 얻어 주곤 했다.』 『: 경비병의 성격② 나름의 인정을 베풀 줄 앎.

형은 그것을 찔퍼 포켓에 넣어 두었다가, 밤이 깊어서 모두 잠들었을 무렵에야, 동생과 반씩 갈라 먹곤 했다. - 동생에 대한 형의 애정 거의 매일 밤 이랬다.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 덩이를 은근히 기다리게끔 되었다. - 동생은 형이 밤마다 몰래 주는 밥 덩이를 기대하게 됨.

이렇게 밥을 못 얻은 저녁엔, 형은 또 흑흑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내가 혼자만 먹은 줄 알구 화가 나서 뽀로

↳ 동생이 형 혼자 밥 덩이를 먹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동생에게 밥을 얻어 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울.

통해 있나, 이렇게 못 얻을 때두 있지, 매일 저녁이야 어떻게 얻니, 사람의 일이 한도가 있는 법이지…… 이렇게 냅두리했다. 동

↳ 형은 동생이 자기 혼자 밥을 먹었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함.

생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형은 더 흐느껴 울었다. - 반응이 없는 동생의 태도가 서운해서 울.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 앞에 내밀었다.

↳ 얻어 온 밥 덩이를 동생에게 먹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웃음.

“자, 너 다 묵어.” / 동생이 반을 가르려 들면,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 동생이 자신의 말을 따라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화를 냄.

“난, 때때로 아침에두 얻어먹잖니?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널 안 줄래 안 주는 게 아니구…… 다른 새끼덜 눈이 있어 놔서…… 이렇게 밤까지 기대릴람 하루 종일 주머니다 넣어 뒹아 되겠으니, 손으로 주물럭거리려서 손때가 다 옳아 오르구…… 또 사실 견딜 수가 있니? 목이 닳아서, 히히히…….”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아는 터라 혼자서 다 먹곤 했다.

형은 별쭉별쭉 웃으며, 동생 손에 있는 밥 덩이를 만져 보면서,

↳ 얻어 온 밥 덩이를 동생에게 먹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웃음.

“좀 퍼뜩퍼뜩 먹으려무나, 오무작오무작거리지 말구. 어머니? 오늘 저녁 건 쌀알이 좀 많니? 좀 괜찮은 것 같니?”

이러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 형도 먹고 싶지만 동생을 위해 참고 있음.

어느 날 밤엔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 치웠을 때 형은 갑자기 또 울음이 터졌다.

“……?” / 동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마구 꼬집어 뜯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

↳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하다.

니라 형이 남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며, 이런 『: 형을 멀리했던 마음이 사라짐.

꼬락서니로 형과 만나진 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없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종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단념해 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 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벅차게 서러워 오고 지난날의 형에 대한 스스로가 후회되며,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것이 즐거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써 얻어진 신념 같은

↳ 과거 형을 무시했던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함. 『: 형에 대한 과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동생.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엄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호철, 「나상」

#작품의 특징

- 대화 중심의 사건 전개를 통해 특정 장면을 상세하게 부각하며 서술함.
- 인물의 특정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를 직접 제시함.
-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 시점이 다름.
- 전쟁의 비극성을 통해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드러냄.



권여선, 「이모」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사색적, 비판적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제재 : 한 여성의 굴곡진 삶
- 주제 :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서 희생된 여성의 굴곡진 삶과 주체적 삶 찾기
- 인물 :
 - '나': 서술자. 시이모님의 조카 며느리. 작가라는 직업 덕분에 시이모님과 이야기를 듣게 됨.
 - 이모: 시이모님. 시어머니의 언니.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희생함. 나이가 들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함.
 - 시어머니: 시이모님의 여동생. 친정과 거리를 두고 살지만 언니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함.
- '손바닥을 지지는' 행위의 의미 :

대학 1학년 때 성가시고 귀찮다고 남학생의 손바닥을 무의식적으로 지짐. → 자신(이모)이 그 남학생에게 가해자가 됨. → 가족들 사이에서 늘 피해자였던 시이모님이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음을 깨달음.

⇒ 피해와 가해, 악의와 적의의 순환성 등 삶의 다양한 감정과 관계들을 깨닫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됨.

#EBS

해제

이 작품은 과거 가족을 부양하느라 희생했던 여성이 가족과 단절한 채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복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 희생되고 억압되어 살아온 우리네 여성의 굴곡진 삶을 보여 주고 있지만 단순히 그런 통속성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인 '나'의 시이모님이 삶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와 가해, 악의와 적의의 순환성 등 우리 삶을 그물망처럼 엮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관계들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서 희생된 여성의 굴곡진 삶과 주체적 삶 찾기

전체 줄거리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책장암에 걸린 시이모님을 만나게 되고, 시이모님의 제안으로 정기적으로 시이모님 댁에 방문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다. 시이모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남아 선호 사상을 지닌 그녀의 어머니와 사고만 치는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는 데 자신의 삶을 모두 소진한다. 남동생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지쳐 어느 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한다. 그사이 병에 걸리고 작은 아파트에서 도서관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가끔 자신을 방문하는 '나'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단출하고 검소한 삶을 영위하며 지낸다.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유산을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나'의 시어머니), 조카('나'와 태우)에게 균분하여 상속하고 숨을 거둔 시이모님의 삶에 '나'는 연민을 느끼고, 그녀의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여선, 「이모」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이모님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한 번쯤은 가 보는 게 도리일 터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라 적잖은 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길도 복잡하니 택시를 타자고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시이모님이 어디가 아프
↳ 시어머니의 성격

신지 문자 채장암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전이는 안 되었는지 물으려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갈 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 병이 심각함을 짐작함.

“우리 언니,” / 어머니는 잠시 움찔하더니 말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네 시이모님은, 아주 괴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마는 성격이지.”

시이모님의 성격 ↳

나는 그런 점은 자매가 아주 닮았다고 생각했다. - 시어머니 성격을 짐작하게 함.

“난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친정이 싫었으니까.”

↳ 시어머니께서 친정을 자주 왕래하지 않은 이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이해하겠느냐 묻는 듯도 하고, 너도 그런 건 아니냐 살피는 듯도 했다.

“『우리 언니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그 집에 경찰이 녀석이, 그러니까 네 시외삼촌 말이다, 개가 가끔 들락거렸는데, 개가 돈 사고 치면, 그래, 이제 너한테 못 할 말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언니가 몇 번 물어 주고 그랬지.』 그러다가…….”

『: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삶-시이모님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우리는 어느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야 다시 얘기를 이어 나갔다.

↳ 낮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함. ↳

“그게 재작년 가을인가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편지 한 장만 써 놓고 사라졌다. 『자기를 절대 찾지 마라, 당분간 모든 관계를 끊고 살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 보고 싶다, 마음이 변하면 돌아오겠다』 『: 편지 내용

↳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거부-이전 삶의 단절

↳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의지

,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내용도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너는 글을 쓰니 알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 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글에 담긴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글자도 아니고, 글씨체도 아니고.” / “문체요?”

“문체? 그런 걸 문체라고 하나?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언니도 옛날엔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 서술자인 ‘나’와 시이모님 사이의 공통점. 시이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이유

아무튼 언니 편지를 읽는데, 문체인지 뭔지에 깃들여 있는 마음이나 기분 같은 게 으스스하게 느껴지는데, 못된 말을 쓴 것도 아

↳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연함.

니고 다 평범한 말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서럽더라. 난 그게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그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시이모님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태우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러

↳ 시이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 ‘나’의 남편. 시이모님에게는 조카.

다 영영 못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 스스로도 그 겨울밤에 대해 몇 번이나 되풀이해 얘기했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뭘

↳ 그날 하루 동안 주변 사람들과 스쳐가다 대학 1학년 때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남학생의 손을 담뱃불로 무의식적으로 지진 일을 떠올리고 자신의 손바닥에

그 행위를 반복 하던 날

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면 기억이란 매번 말과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살금살금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한 번에 몇 마디씩 밖에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들은 또 이전에 한 말들과도 조금 달랐다.

『나도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지는, 았았겠지. 불가촉천민처럼, 아무에게도, 가당치 못하게.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다.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란 뜻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사성(四姓)에 ↳

↳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수용하는 태도

속하지 않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래도 내가, 성가시고 귀찮다고, 누굴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좀, 지진거야. 손바닥이라, 금세 아물었지. 그게 나를, 살게 한 거고.』 ↳ 자신이 한 행동을 더 심한 행동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함.

『: ‘겨울밤’을 계기로 이모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음(자포자기의 태도→생의 의지로 빛나면서 절제된 자세)을 드러냄.

그녀는 내게 입술에 물을 축여 달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거즈에 보리차를 묻혀 그녀의 입에 대 주었다.



권여선, 「이모」

“여긴, 책도 없는데, 목이 마르구나.” / 그녀는 어린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물을 빨았다.

↳ 병원 ↳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책 먼지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이모가 말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그게 뭘까…… 나를 살게 한…… 그 고약한 게…….”

그때 이모의 얼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녀의 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체에서 느꼈던 무섭고 서러운 감정이 뭘까, 골똥히 생각하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내 잠인지 혼수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고 시어머니가 병상을 지키던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현금은 그녀가 유언장에 써 놓은 대로 상속되었다. 원래는 가장 우선순위인 시외할머니에게 모두 상속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시외할머니에게 1/3, 시어머니에게 1/3, 그리고 태우와 내게 1/3을 상속한다고 지정해 놓았다. 시외할머니는 우리가 합의하여 딸딸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 빛을 갚는 데 쓰기를 바랐지만

↳ 시이모님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시외할머니의 가부장적 관습의 모습

시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양하는데도 우리 부부의 통장에 이모의 유산을 입금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고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한 달에 35만 원씩만 쓰던 그녀가 9년 5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오래 시이모님의 삶에 느낀 연민을 직접 드러냄.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이모의 삶이 검소하고 절제된 삶이었음을 드러냄.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여덟 자리 숫자는 그녀와 세상 사이를, 세상과 나 사이를, 마침내는 이 모든 슬픔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 그녀와 세상 사이의 거리이자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이며 그녀(이모)와 나 사이의 거리인 불가촉한 거리를 상징.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아득하고 불가촉한 거리처럼도 여겨졌다.』 『』: 시이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했으나, ↳ 만질 수 없는 사실 온전히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음.

#작품의 특징

-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관습적 차원에서 남성 중심주의로 차별받는 여성이 등장함.
- 인물이 사회 구조의 모순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줌.
- 개별적 존재로서 여성의 삶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냄.
- 특정 인물의 기구한 삶을 주요 사건으로 제시함.
-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을 드러냄.
- 짧은 첩표 사용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함.



임철우, 「사평역」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서정적, 회상적, 성찰적
- 배경 : 시간-1970~80년대 눈 내리는 겨울밤 / 공간-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의 대합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고단함과 그들을 향한 연민
- 인물 :
 - 역장: 사평역의 역장. 대합실의 난로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함.
 - 농부: 병든 아버지(=노인)와 함께 병원을 가기 위해 사평역 대합실에서 기다림.
 - 중년 사내: 이복 사람으로 사상범으로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함.
 - 대학생(=청년):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대학교에서 제적당함.
 - 서울 여자: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돈을 중시하지만 인정 있는 모습도 보임.
 - 촌심: 서울에서 술집 작부로 일함.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함.
 - 행상꾼 아낙네들: 생계를 위해 사평으로 행상을 다니며 살아가는 여인들.
- 미친 여자: 사평역 대합실에서 종종 잠을 청함. 막차를 타고 떠나지 않고 계속 역에 남음.
- 소재 :

난로	-대합실에 온기를 주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 -회상의 성찰의 매개체
특급열차	-간이역인 사평역을 정차하지 않는 열차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가진 자들이 탈 수 있는 열차 -사람들이 기다리는 완행열차와 대비되는 소재
열차(=완행열차)	-대합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열차 -특급열차와 달리 눈 때문에 쉽게 오랜 시간 오지 않음.
사평역	시골 간이역.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공간.

#EBS

해제

이 작품은 광재구의 시「사평역에서」를 재구성한 소설로, 시의 여러 구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라는 주제를 소설로 구현하고 있다. 시의 배경과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시에서 '몇', '모두들'이라고 지칭된 집단을 개개의 인물로 개별화하였다. 병든 노인과 그의 아들, 감옥에서 출소한 중년 사내,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한 청년, 함께 일한 사평역을 찾아 온 서울 여자 등은 연착하는 야간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고, 서술자는 이들을 호명하고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고단함과 그들을 향한 연민

전체 줄거리

역장은 좀처럼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대합실에는 미뤄 왔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노인과 그의 아들,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의 부탁으로 그의 노모를 찾아왔던 중년 사내, 가난한 가족의 희망이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 제적을 당한 청년, 자신의 식당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사평역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녀를 돕고 돌아가는 서울 여자 등이 모여 난로를 쬐며 대화를 나누다가 침묵한다. 기다리던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끝에 도착하고, 기차가 떠난 대합실에 홀로 남은 미친 여자를 위해 역장은 난로를 데울 톱밥을 챙기러 사무실로 간다.



임철우, 「사평역」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깥을 들고 나타난다. 바깥에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 있다.

↳ 대학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 역장의 관심과 배려.

“추위에 고생하십니까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 농부가 역장에게 호의적인 이유. → 농부의 순박한 성격.

“필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너그러운 소리를 농부가 또 덧붙인다.

↳ 역장에 대한 농부의 호의를 드러냄.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바깥을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 넣은 다음 바깥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 역장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유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멀잡아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 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 중 음울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 일상에 관한 이야기. 열거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통이를 한 권으로 치워 놓는

↳ 서술의 중심이 역장과 사내로 전환됨.

다. 그 보통이엔 한 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 사내가 허 씨의 고향을 찾으려 그의 노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구입한 것.

↳ 감옥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 늙은 역장이 결의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 이복 사람으로 사상범으로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인물.

“아, 아닙니다.” /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삼십 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니까요. 허허.” /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으나 봅니다.” - 사내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음.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 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 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

↳ 중년 사내의 사연 소개(회상)

↳ 사내가 한 두름의 굴비를 산 이유

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 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 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 씨가 알려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 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오 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 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모에 접어든 허 씨의 쓸쓸한

허 씨의 노모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좋은 소식을 허 씨에게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

↳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 또는 그런 사람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다만 다른 사람들의 것일 따름인 그 술한 계절들을 맛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싸여 죽음을 맞아야 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

↳ 허 씨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내.

↳ 피난 중에 부모와 고향을 잃은 사내가 감옥에서 노모를 잃은 허 씨에게 동질감을 느낌.

디 이복이었지만 피난 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 왔던 것이었다.

(중략)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 야아, 오는구나. - 반가움, 기대감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집 꾸러미를 찾아 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임철우, 「사평역」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 간이역인 사평역을 정차하지 않는 열차.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가진 자들이 탈 수 있는 열차.↔완행열차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빠 사라진다.

참, 그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똥똥이는 짜증스레 내뱉

↳ 실망감, 허탈감.

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 가며 툭툭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롯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기다리는 기차가 아님을 알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반응 제시.

그사이, 열차는 쿵광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 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칠흑의 어둠이 째짜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가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완행열차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특급 열차가 여러 번 지나갔음을 통해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부각함.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

↳ 청년.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대학교에서 제적당함.

↳ 특급 열차의 불빛

올랐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 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

↳ 원작 시 「사평역에서의 구절이 활용됨.

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재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짙어가는 송이눈이 쌓여 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애가 툭툭 난로의 불빛을 은은

↳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일 에 대한 피곤과 체념이 드러남.

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 사람들이 각자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김.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땡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러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하다.

모든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툭툭 튀어 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디…….”

↳ 고단한 삶에 대한 체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작품의 특징

-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초점화하고 있음.
- 원작에서 ‘몇’으로 지칭되는 인물들이 소설에서는 농부, 중년 사내, 노인, 청년 등 개별 인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원작처럼 열차를 기다리는 설정은 같지만, 특정 일화를 추가로 설정하고 있음.
- 원작의 시구를 활용하여 인물과 공간을 묘사하고 있음.
- 중심인물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여러 인물의 내면과 그 사연을 병렬적으로 서술함.
-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서술의 현장감을 살림.
- 인물의 생각을 작은따옴표 등의 인용 표시 없이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대비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인물의 행적에 대해 과거를 회상하며 성찰하는 식으로 서술함.
- 시골 간이역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분위기와 주제를 암시함.



채만식, 「치숙」

- 갈래 : 풍자 소설
- 성격 : 비판적, 풍자적
- 배경 : 시간-일제 강점기, 공간-서울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 친일적 소시민의 속물적 삶에 대한 비판
- '세상 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태도 :

'나'	↔	아저씨
- 다이쇼의 신용을 받고,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 - 세상 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함. - 자신이 아는 세상 물정에 맞게 행동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함.		- 사람의 의지로 어찌하기 어려운 세계의 지배적인 힘. - 개인의 힘으로 세상 물정의 힘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함.
↓		↓
-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지극히 부족함.		-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모순을 인식함. - 사회주의자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

- 신빙성 없는 서술자와 서술자 '나'의 특성 :

신빙성 없는 서술자	「치숙」 속 서술자인 '나'의 특성
의미: 미성숙, 무교양, 무지로 인해 자기가 서술하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 해석, 평가하지 못하는 서술자. 특징: - 독자가 신뢰하기 어려움 -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통해 추론과 상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함.	- '나'는 자신의 친일적 신념과 속물적 태도를 말하여 스스로 풍자의 대상임을 드러냄. - '나'는 아저씨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무지함과 속물성을 드러냄. - '나'의 말하기에서 무지와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자기 폭로의 방식이 부각되어 독자의 냉소를 끌어냄.
↓	
「치숙」 속 서술자인 '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제시되어 당대의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효과를 높임.	

- 제목 '치숙'의 의미와 반어성 :

치숙(痴叔)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다. 서술자인 '나'가 지식인이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저씨를 두고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나 작품 속 '나'는 그의 말을 통해 무지하고, 속물적이며, 친일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 따라서 '치숙'은 맥락에서 보면 반어적 표현이 된다.

#EBS

해제

이 작품은 채만식의 대표적인 풍자 소설 중 하나로, 일제 강점 아래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아저씨'와 친일적 소시민인 '나'의 내력과 둘 간의 대화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전면에 놓이는 것은 아저씨를 조롱하는 '나'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나'가 말할수록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결여된 '나'의 속물적 태도가 폭로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친일적 소시민의 속물적 삶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주제

친일적 소시민의 속물적 삶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직원으로 친일적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적 성공을 꿈꾼다. 이런 '나'의 시각에서, 대학까지 나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하고 지금은 폐병으로 고생하는 아저씨는 무능하고 어리석다. '나'와 아저씨는 '나'의 계획, 세상 물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어긋날수록 '나'는 아저씨의 삶이 쓸모없다며 폄하한다.



채만식, 「치숙」

내 이상과 계획은 이러거든요.

↳ 일본인 상점 주인에게 잘 보여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것.
→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에 따른 친일적 가치관이 드러남. 식민지 시대의 전도된 가치를 드러냄.

↳ 본디부터 남다르고 특별히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깐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밀천 들어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

↳ '내가 일하는 상점의 주인. '내가 자신의 이상과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

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평평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 '나의 이상과 계획'① 경제적으로 성공함.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 '나의 이상과 계획'② 일본 여자와 결혼.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지칭하는 말. 일본 본토. 일제 식민지 시대임을 알게 함.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어요. - '나는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과 조선 사람을 경멸함.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쯤이나 좋아!』

↳ '나는 일본과 일본 사람을 선망함. 『』: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과 이에 동조하여 전도된 가치 의식을 지님.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 창씨개명(創氏改名)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 '나는 일본인이 되기 위해 이름부터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을 일본화하고자 함.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걸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 일본말. 일제 식민지 시대임을 알게 함.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내가 모든 것을 일본화하려는 목적. 개인의 안위와 경제적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속물적 태도.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 “아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 모든 것을 일본화하려는 '나'에 대한 비판 ↳ 생활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더럽다'라고 비판. →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으로 사회의식은 마비되고 개인적 성공만을 중시하는 사람의 속물성을 신랄하게 비판함.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 '나의 태도가 '아침'하는 태도라는 인식.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

↳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 →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처세술임.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시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 현실의 권력에 추종하고 순응하려는 비굴한 태도.

『』: 아저씨에 대한 '나의 비판. → 비판의 대상인 '나'가 오히려 비판의 주체인 아저씨를 훈계하는 장면을 통해 풍자 효과를 높임.

“이 애?” /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고 그랬지?” /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고 그랬지?” /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채만식, 「치숙」

아니다.” /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옥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 “네?” ↳ ‘아저씨’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개인을 넘어선 시대와 역사의 흐름.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 ‘나’의 계획이 시대 의식과 역사 흐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것임을 암시함.

#작품의 특징

- 풍자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부각됨.
-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함.
- 정교한 묘사나 치밀한 구성 대신 함축적인 대화로 서술됨.
-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비교함.
-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풍자 효과를 높임.
- 칭찬과 비난을 서로 역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현실 순응적 인물을 비판함.
-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아저씨의 한계도 지적함.
- 판소리 사설과 같은 독백체(전반부)와 대화체(후반부)를 통해 풍자의 성격을 드러냄.
- 속어나 비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임.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 갈래 : 연작 소설,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 배경 : 시간-1970년대, 공간-느티울 마을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우리 동네 황 씨의 행적
- 주제 : 연대 의식을 잃고 이기적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 황 씨의 속물적 삶에 대한 비판
- 갈등 :

황 씨(=춘자 아버지)	↔	아낙네들
구호 물품으로 입던 팬츠를 내놓음		황 씨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함.

#EBS

해제

이 작품은 연작 소설 『우리 동네』에 속한 단편 소설로, 원 제목은 ‘으악새 우는 사연’이다. 이 작품은 느티울 마을의 사람과 풍경을 통해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로 발생하는 농촌 공동체의 문제와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황 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가 연대 의식을 잃고 속물화되어 가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주제

연대 의식을 잃고 이기적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 황 씨의 속물적 삶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김 씨는 TV로 인해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마실을 나간다. 그리고 느티울 마을의 회관에서 황선주의 팬츠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본다. 토지 임대, 고리대금업으로 부유한 황 씨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유명하다. 수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 각출 회의에서 자신의 배만 불릴 말만 한 황 씨는 급기야 구호 물품으로 자신의 속옷을 내놓는다. 황 씨의 행동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속옷을 바지랑대에 걸어 놓는다.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이야기하다 황 씨의 또 다른 속물적 행동을 알게 되고, 마침 황 씨가 등장하자 그를 조롱하고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그날 반상회는 안양, 시흥 지역의 수재민의 연금 각출을 위한 토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황 씨가 악용하려는 자리. → 근대화된 농촌의 속물적 인식의 단면이 드러남.

서울 물도 먹고 했으니 그만한 눈치쯤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렵했을 사람이 황이었다. 그러나 황은 성수기가 되어 값이 채기* 전

김장에 쓸 소금을 모개* 흥정해다 나누자니, 조합의 사업을 악용하여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이기적인 모습. ↳

에 마을 공동으로 황새기질을 사야 한다느니 하며 제 배 불릴 소리만 지껄였던 것이다.

↳ 황 씨의 발언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 황 씨의 소시민적 모습을 향한 비판과 조롱.

민발로라도 동네 형편 생각하여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솟기 전에 어렵에 직접 거간*을 넣어 혈직하게 떼어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마디만 섞었더라도 그다지 밍살맞게 여기지는 않았을지 몰랐다. 이재민 구호품으로 집집이 쌀 두 되, 돈으로 육백 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가지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얻어 내기로 결정을 본 뒤에도 황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만 씨월거렸던 것이다.

수재민 연금 각출을 위한 토의 결과 ↳

(중략)

반상회 이튿날 아침, 어머니회 회장 창근 어매와 부녀회 회장 구충서 아내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옷가지따위를 걸으러 김이 끌여 주는 리어카를 앞세워 나가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은 경운기를 빌려 쌀을 걸으러 나섰는데, TV를 통해 수재민들의 딱한 꼴을 여러 날 본 데다가 반상회의 결의도 있고 하여,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리 한마디 섞지 않고 웃는 낯으로 반겨 주었다. 하지만 리어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선주네 집에 이르러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 마을 사람들이 수재민 구호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

↳ 마을 사람들과 대조적인 황씨의 모습.

김이 리어카를 끌고 그 집 발마당에 들어서는데 황은 안마루에서 자두를 한 소쿠리 따다 놓고 한창 술 담글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김은 내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추렴*은 아낙네들 소관이므로 뉘 집에 가도 올안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충서 안과 창근 어매가 울안으로 들어간 사이 김은 마당 귀퉁이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얼른 간장이나 한 양푼하고 입던 옷가지를 얻어 나와야 할 사람들이 담배 한 대를 다 털도록 꿍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김은 물꼬를 봐야 하고 손대어야 할 그루밭도 한두 군데 아닌데 뉘 직장인가 싶어 속이 상했다. 참다못해 김이

“아따 챙근 엄니, 메주를 썬우 장을 대리유? 왜 그리 꿈지력그리슈?” /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 수재민들은 뻥쓰두 안 입는단 말유?” / 하는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윽고

“그럼 이 돈은 이따 쌀 걷는 사람들이 오걸랑 그리 주셔유. 나는 책임질 수 읍으닝께.”

↳ 황 씨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 ‘쌀 두 되, 돈으로 육백원 이상’ 내기로 한 것을 쌀 두 되 값인 돈 560원만 내놓았기 때문에

하며 돈으로 낸 것을 창근 어매가 도로 무르는 소리에 이어, 다시 황이 못마땅한 어조로

“메뚜기 마빡만 헛 동네서 이재민 구호물자 한 볼탱이 것 은으러 댁기는디 패를 가를 건 뉘여. 오는 사람성가시구 주는 사람 구찮으니까 온 집에 아주 받아 가슈.” / 하고 내뱉는 소리가 겹쳤다.

“누구는 이랄 머리 읍어 이러구 댁긴다남유. 어체피 올 테닝께 그리 줘유.”

충서 안에서도 황에게 밀리려 하지 않았다.

“아따, 망진 쓰나 당진 쓰나 살쩍 밀기는 일반이랍디다. 『은어 가는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릴 저를 있겼수.』

『』: 관용구를 활용하여 구호 물품을 걸으러 온 사람을 비교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함.(설의) ↳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배부른 행동을 한다.’는 뜻의 관용구

이 동네 아줌니들은 워째서 이리 까닥스럽다유?”

황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 “은어 가다니유?”

충서 안사람이 부르튼 소리를 하는데 창근 어매 복장 터져 하는 소리가 결바대로 들렸다.

“춘자 아버지두,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뻥쓰를 은으러 왔단 말유? 희치희치허구* 낚음낚음헌 흔뻥쓰를…… 뻥쓰 장수

↳ 황 씨.

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주게 생긴 걸레를 은으러 예까장 펄렁그리구 왔대유? 세상에 원…….”

미루어 보건대 이재민 구호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츠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김은 구경만 하고 있잠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

↳ 황 씨의 인색함.

의 집 안에 들어가 사내 여편네가 남남끼리 하필 팬츠를 놓고 가가거겨하는 옆에서 옆들이 하잠도 아닌 듯하여 부찌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챙근 엄니는…… 말을 귀루 안 듣구 입으로 들유? 수재민이라구 훗것*만 입으라는 뺨이 워디 있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끄니 래두 끓이라구 추렴해 준 양석 팔어 뻥쓰버텀 사 입으야 쓰겼수? 게, 다 나두 생각이 있어 내는 겐디 댁세* 나를 트집혈류? 말에 도장 읍다구 함부로 입방아 찿지 마유. 이게 왜 흔 게유. 남대문 표는 삼 년을 입어두 새물내만 낚디다유. 공중* 넘우세스럽게 시리* 이유 삼지 말구 얼릉 탄 디나 가 보유.” / “…….” ↳ ‘남대문에서 만든 옷은 삼년이 지나도 깨끗하다’는 뜻의 과장된 말.

→ 황 씨가 자신이 내놓은 구호 물품이 가치가 있음을 강변함.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밀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엔 별 못 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김이 말했다.

“아따나…… 쟁근 엄니두 예지간허슈. 애초 저기헌 사람허구 저기했야 말이지…… 야중*에 다 저기허는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루 받아 나오슈. 이러다가는 일 품 매구 해넘이허겄슈.”

그 말을 계제* 삼아 창근 어매가 말했다.

↳ 황 씨의 인색함을 반어적으로 비꼬.

“남답문이구 앞답문이구 간에 수재민 고쟁이 걱정허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느티울 춘자 아버지뿐일규. 확실히 우리게는 꽃동네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 남대문 표임을 강조하는 황 씨의 주장이 허황된 말임을 환기하면서 그의 주장을 무시하는 표현임.

새동네여.”

↳ ‘정답고 화목한 동네’라는 뜻의 ‘꽃동네’를 반어적으로 쓴 말. → 황 씨의 이기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조롱함.

*채기: 물건값이 오르기.

*모개: 죄다 한데 묶은 수효.

*거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

*희치희치허구: 피륙이나 종이 따위가 군데군데 치이거나 미어진 데가 있고.

*훗것: 한 겹으로 지은 옷.

*덥세: ‘도리어’의 방언.

*공중: 공연히.

*넘우세스럽게시리: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게.

*야중: ‘나중’의 방언.

*계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작품의 특징

- 서술자가 풍자의 주체가 되어 특정 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부각함.
- 서술자가 조롱과 희화화를 통해 인물을 풍자하면서 대상의 부정성을 드러냄.
- 풍자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부각됨.
-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강조함.
- 고유어와 방언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살림.
- 관용구, 과장을 활용하여 인물의 의도를 강화함.
- 언어유희, 반어 등의 표현을 통해 인물을 비판함.
-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 속에 농촌 공동체가 연대 의식을 잃고 속물화되는 문제를 소시민적 인물을 통해 드러냄.
- 인물의 소시민적 특성에 대한 독자의 냉소를 이끌어냄.